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12월 미 인플레 둔화했고, 소비자 소득과 지출도 증가
- WSJ: 미 12월 내구재 주문 안정세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배달 규제 부서 설립

[미국 생활]

- WSJ: 미국 부모 60%가 성인 자녀들에게 재정 지원

[반도체]

- Bloomberg: ASML 사상 최고치 경신, AI 반도체에서 위상 입증
- Bloomberg: 샘 알트만, 삼성과 SK 하이닉스 만나 반도체 생산 논의할 듯

[미·중 경제]

- Bloomberg: 미국 경제, 중국 추월했고, GDP 증가액이 한국과 맞먹어
- CNBC: 중국측, “미중간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줄이는 중”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GM 자율주행 관련, 연방당국에 조사받다
- WSJ: 인텔, “1분기 다소 부진한 매출 전망에도, 앞으로 나아진다”
- Bloomberg: 스피릿 항공 주가,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주가 18% 폭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Pressures Remained Moderate in December

12월 미 인플레 둔화했고, 소비자 소득과 지출도 증가

- 미 인플레 압력이 12월에 대부분 둔화되고, 소비자 지출은 강했고 소득은 올랐다. 한마디로 경제의 소프트랜딩의 모든 조건을 보이고 있다.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수치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11월과 비교해 12월에 0.2% 상승했다고 연방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 인플레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다.
- 12월은 인플레가 크게 하락한 한해를 마감했는데 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에 머물렀다.

WSJ 기사

WSJ: U.S. Durable-Goods Orders Stable in December

미 12월 내구재 주문 안정세

- 작년 12월에 미 내구재 주문이 별 변동이 없었다. 어제 목요일 연방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가전 제품과 컴퓨터, 자동차, 기타 제조품에 대한 신규 주문이 계절정 조정 입장에서 보았을때 월별 안정세를 보였다. 11월의 5.5%라는 급등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주문이 증가한 부문은 통신장비, 컴퓨터, 전자 제품 분야였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ity Set to Launch 'Department of Sustainable Delivery'

뉴욕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배달 규제 부서 설립

- 뉴욕 시장은 배달 서비스를 하는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마이크로모빌리티 감독' 기관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 기관 이름은 지속가능한 배달국(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그동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보행자와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 길거리 안전,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에 따른 위험 등의 논쟁이 발생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Well Into Adulthood and Still Getting Money From Their Parents

미국 부모 60%가 성인 자녀들에게 재정 지원

- 성인이 된다고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의 경우 과거 세대보다 생활 관련 비용이 더들고 있다.
- 이와관련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모의 59%는 작년에 젊은 성인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녀들은 35세 미만이다.
- 그리고 25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1993년 53%에서 57%로 늘어났다.

WSJ 기사

[반도체]

Bloomberg: ASML's Surge to Record High Shows Importance to AI Chipmakers

ASML 사상 최고치 경신, AI 반도체에서 위상 입증

-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회복하면서, 4분기 ASML 장비 예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 AI 시스템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수 반도체가 요구되는데, ASML 장비를 사용하는 엔비디아가 이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 한편 ASML의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나 회복의 양상과 기간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자사의 반도체 장비 예약 추세는 변동적이며, 내년에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4분의 1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OpenAI's Altman to Meet Samsung, SK Hynix During Korea Trip

샘 알트만, 삼성과 SK 하이닉스 만나 반도체 생산 논의할 듯

- Open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이번 주 한국의 반도체 업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의 선구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트만은 어제 목요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으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과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 알트만의 한국 방문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그가 반도체 제조 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준비 중이라고 이번 달에 보도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US Economy Outstrips China, Adds a Korea Worth of GDP 미국 경제, 중국 추월했고, GDP 증가액이 한국과 맞먹어

- 미국은 작년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으며 상장 규모가 한국 GDP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작년에 GDP 증가분은 1조6천억달러 규모다. 이는 지난 2022년의 한국 GDP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 인플레이를 조정하지 않은 성장률로 미국은 6.3%를 기록해서 중국의 4.6%를 추월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매였고, 반면에 한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Bloomberg 기사

CNBC: U.S. and China are working to make the business environment less volatile, Beijing says**중국측, “미중간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줄이는 중”**

- 중국 상무부장인 Wang Wentao는 금요일 “중국과 미국정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미 연방상무장관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이래 양국은 장관급 차원과 그 아래 차원의 정기적인 미팅을 갖기로 합의했다.
- 그동안 중국내 미국 기업들과 해외기업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때 중국 국내 기업과 비교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등 불만을 표출해왔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GM's self-driving car division is under investigation by DOJ and SEC after pedestrian dragging incident****GM 자율주행 관련 ,연방당국에 조사받다**

- 어제 GM의 자율주행 차량인 크루즈가 두 곳의 연방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다.
-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의 직원이나 경영진이 사고에 관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루즈가 조사당국에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작년 10월 2일, 크루즈 자율 주행 택시는 차에 치여 쓰러진 여성을 20피트 정도 끌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켰다.

CNN Business 기사

WSJ: Intel Gives Muted Outlook Even as PC Recovery Lifts Sales**인텔, “1분기 다소 부진한 매출 전망에도, 앞으로 나아진다”**

- 인텔이 이번 분기 매출에 다소 부진한 매출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기업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백27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단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
- 인텔의 CEO인 Pat Gelsinger는 프로그래머블 칩(programmable-chip) 시장의 침체와 자율 주행 사업부인 Mobileye Global의 매출 부진이 원인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며, 올해 매 분기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 언급했다.

- 그의 이런 전망은 컴퓨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다. 러시치 회사 Gartner에 따르면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PC 출하량은 10월부터 12월까지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Spirit Air Slumps After JetBlue Warns Deal May Be Terminated

스피릿 항공 주가,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주가 18% 폭락

- 스피릿 항공의 주가가 18% 폭락했다. 제트블루 항공이 38억 달러 규모의 이 항공사의 인수가 수일 내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오늘 금요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제트블루 항공이 스피릿 항공에 계약 날짜까지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1월 28일 이후에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 이런 통보는 이달 초 반독점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라는 연방 판결에 항소한 뒤 이어 나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올해 세계 2.6% 성장...공격적 금리인하 기대와 상충"

로이터, 이코노미스트 48명 대상 설문조사 "美연준, 올해 증반에야 금리 인하 나설 것"

시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어긋나게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안정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3~25일 이코노미스트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6%였다.

경기 호황은 아니지만 침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